

WEBVTT

00:00:10.250 --> 00:00:11.355
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00:00:11.455 --> 00:00:12.610

김태동 선생입니다.

00:00:12.710 --> 00:00:16.559

오늘 이 시간에는 실전 5번하고
실전 6번을 들어갈 거예요.

00:00:16.659 --> 00:00:20.251

실전 5번은 보시면 알겠지만
여러분, 현대시하고

00:00:20.351 --> 00:00:22.369

철학의 여백이라고 하는
수필인 것 같습니다.

00:00:22.469 --> 00:00:23.917

수필이 들어가 있고요.

00:00:24.017 --> 00:00:27.054

그다음에 두 번째 우라지오
가까운 항구에서 하고

00:00:27.154 --> 00:00:29.449

탈향이라고 하는 소설이
들어가 있습니다.

00:00:29.549 --> 00:00:33.320

신경향이라고 해서 다른 장르
것끼리 이렇게 묶여 있는 건데,

00:00:33.420 --> 00:00:35.195

신경향이라고 보기보다는
옛날에도 이런 것들이

00:00:35.295 --> 00:00:37.026

몇 번 나온 적 있었습니다.

00:00:37.126 --> 00:00:42.063

그런데 최근에는 장르가 깨지고 있는
게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.

00:00:42.163 --> 00:00:47.040

문제 유형들이나 이런 것들이
좀 달라지는 것뿐이고,

00:00:47.140 --> 00:00:51.739

문제 유형도 달라졌다는 게
완전히 전혀 색다른 문제가 나오고

00:00:51.839 --> 00:00:52.693

이런 건 아니고요.

00:00:52.793 --> 00:00:54.979

국어의 기본은 가장 유지되고
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0:55.079 --> 00:00:56.319
예를 들어서 1번 문제 볼까요?

00:00:56.419 --> 00:00:58.419
(가)와 (나)에 대한
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00:58.519 --> 00:01:01.223
표현상 특징을 찾는 거니까 똑같죠.

00:01:01.323 --> 00:01:05.853
2번, (나)를 통해 알 수 있는
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해서

00:01:05.953 --> 00:01:10.363
이거는 수필이니까 수필에서는
주제 의식을 찾는 게

00:01:10.463 --> 00:01:13.267
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오니까
주제 의식만 찾아내면 됩니다.

00:01:13.367 --> 00:01:15.836
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
될지만 찾으시면 되죠.

00:01:15.936 --> 00:01:20.073
그다음에 3번을 보면 ㉠~㉢에 대한
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01:20.173 --> 00:01:24.116
㉠~㉢이 나오면 이걸 각
시에서 부분 부분에 대한

00:01:24.216 --> 00:01:25.541
해석 문제가 나오죠.

00:01:25.641 --> 00:01:28.299
4번은 (나)의 글쓴이의
관점에서 (가)에 대한 감상.

00:01:28.399 --> 00:01:30.250
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
새로운 유형인데.

00:01:30.350 --> 00:01:32.696
이건 (나)의 글쓴이의
관점이 이해되셔야 되고.

00:01:32.796 --> 00:01:36.251
그다음에 (가)에 대한 감상을
해봐라, 이렇게 얘기했는데.

00:01:36.351 --> 00:01:38.784
(나)의 글쓴이의 관점이
(나)에서 글쓴이가

00:01:38.884 --> 00:01:40.690
말하고자 하는 주제
의식이 도대체 뭐냐?

00:01:40.790 --> 00:01:42.834

그걸 한번 찾아보라는
얘기죠, 됐습니까?

00:01:42.934 --> 00:01:45.278

내용을 한번 가볼게요.

00:01:45.378 --> 00:01:48.005

숲을 멀리서 바라보고
있을 때는 몰랐다.

00:01:48.105 --> 00:01:49.457

제목이 간격입니다.

00:01:49.557 --> 00:01:52.237

숲을 멀리서 바라보고
있을 때는 몰랐다.

00:01:52.337 --> 00:01:53.806

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피상적으로

00:01:53.906 --> 00:01:55.916

관찰만 했을 때는 잘
몰랐다는 거예요.

00:01:56.016 --> 00:01:57.399

그전까지는 잘 몰랐어요.

00:01:57.499 --> 00:01:59.931

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게 된
게기가 이제 나올 거거든.

00:02:00.031 --> 00:02:02.335

멀리서 바라보고 있을
때는 몰랐어요.

00:02:02.435 --> 00:02:05.985

그냥 피상적, 피상적인 수박
겉핥기처럼 바깥만 보는 걸

00:02:06.085 --> 00:02:07.472

피상적이라고 하는 거야.

00:02:07.572 --> 00:02:09.076

피상적일 때는 잘 몰랐어요.

00:02:09.176 --> 00:02:12.685

나무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
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.

00:02:12.785 --> 00:02:15.160

어깨를 대고 숲을
이루는 줄 알았대요.

00:02:15.260 --> 00:02:17.821

이게 바로 뭐냐면
그전까지의 편견이었어요.

00:02:17.921 --> 00:02:19.854

그전까지 잘 몰랐던 거고.

00:02:19.954 --> 00:02:22.537
편견이나 선입관이었다는 거죠.

00:02:22.637 --> 00:02:23.475
뭐가?

00:02:23.575 --> 00:02:25.270
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
이루는 줄 알았다.

00:02:25.370 --> 00:02:27.357
제목이 간격이니까 어깨를
대고 있다는 것과

00:02:27.457 --> 00:02:29.322
간격이 서로 대조가
되잖아요, 그렇죠?

00:02:29.422 --> 00:02:31.002
간격이 좀 떨어져 있는 건데.

00:02:31.102 --> 00:02:35.040
그게 아니라 어깨와 어깨를 대고
맞붙어 있는 줄 알았대요.

00:02:35.140 --> 00:02:36.731
그러니까 간격이 없었던 거죠.

00:02:36.831 --> 00:02:42.780
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
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.

00:02:42.880 --> 00:02:44.345
간격이 있다는 거예요.

00:02:44.445 --> 00:02:46.759
간격이라고 하는 게
뭘까, 생각해 볼까?

00:02:46.859 --> 00:02:52.077
그다음,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,
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,

00:02:52.177 --> 00:02:54.250
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.

00:02:54.350 --> 00:02:57.815
점점 더 이 간격의 설명에 대해서
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

00:02:57.915 --> 00:03:00.367
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점층이다
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.

00:03:00.467 --> 00:03:05.248
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져야 되고,
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,

00:03:05.348 --> 00:03:08.232
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.

00:03:08.332 --> 00:03:10.458
자연물이 나오잖아요.

00:03:10.558 --> 00:03:12.611
그 자연물을 통해서 결국은
이제 인간의 삶의 모습을

00:03:12.711 --> 00:03:14.379
드러내려고 할 텐데.

00:03:14.479 --> 00:03:16.169
나무는 간격이 있어야
돼, 인간은 아닐걸.

00:03:16.269 --> 00:03:18.406
이런 얘기를 하고
있는 게 아니잖아요.

00:03:18.506 --> 00:03:21.562
그러니까 나무의 간격이 있다,
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렇겠구나라는

00:03:21.662 --> 00:03:23.189
깨달음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?

00:03:23.289 --> 00:03:24.738
당연히 그런 거고요.

00:03:24.838 --> 00:03:27.345
그러면 인간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
되냐면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.

00:03:27.445 --> 00:03:28.937
간격이라고 하는 게
뭐겠습니까, 여러분?

00:03:29.037 --> 00:03:33.485
간격이라고 하는 게 관조해주는
거고, 여유 있게 하는 거고.

00:03:33.585 --> 00:03:37.269
여유 있게 그 사람의
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.

00:03:37.369 --> 00:03:39.026
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해야죠.

00:03:39.126 --> 00:03:41.512
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다름이
인정되어야 되는 거고.

00:03:41.612 --> 00:03:44.136
학원 강사 내에서도 서로
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.

00:03:44.236 --> 00:03:45.577
그게 바로 간격입니다.

00:03:45.677 --> 00:03:49.607
나무와 나무 사이 그
간격과 간격이 모여서

00:03:49.707 --> 00:03:54.481

울울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.

00:03:54.581 --> 00:03:56.736

간격이 모여서 숲을 이루는 거예요.

00:03:56.836 --> 00:04:00.243

즉, 다시 말하면 서로 간의 차이를,
개인과 개인이 서로 간의 차이를

00:04:00.343 --> 00:04:02.279

인정하면서 뭐가 이루어져?

00:04:02.379 --> 00:04:05.103

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
하고 싶은 걸 거예요.

00:04:05.203 --> 00:04:08.807

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
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.

00:04:08.907 --> 00:04:12.923

그럼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
의미와 긍정적 의미가 다 될 거예요.

00:04:13.023 --> 00:04:14.845

산불은 우선 시련일 거 아닙니까?

00:04:14.945 --> 00:04:19.090

그런데 깨달음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
긍정적 의미도 될 수 있겠죠.

00:04:19.190 --> 00:04:23.691

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
들어가 보고서야 처음 알았다.

00:04:23.791 --> 00:04:25.668

그러니까 숲에 그전까지는
잘 몰랐어.

00:04:25.768 --> 00:04:29.077

걸으며 봤을 때는 뻑뻑하게
모여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.

00:04:29.177 --> 00:04:31.637

지나고 보니까, 산불이 지나고
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?

00:04:31.737 --> 00:04:33.596

바닥 그루터기만 남을 거 아니에요?

00:04:33.696 --> 00:04:37.605

그리고 나서 이제 간격이 중요하구나
이걸 처음 알았다는 거죠.

00:04:37.705 --> 00:04:41.101

그러면 마지막 문제가
뭐였냐면 (나)의 관점으로

00:04:41.201 --> 00:04:44.864

이 간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
되는지 (나) 작품을 보셔야겠죠.

00:04:44.964 --> 00:04:48.403
(나) 작품은 제목이 뭐냐면
철학의 여백이라고 하는 겁니다.

00:04:48.503 --> 00:04:50.503
철학이라고 하는 것이
여백이 있대요.

00:04:50.603 --> 00:04:51.561
가볼까요?

00:04:51.661 --> 00:04:56.090
공허감은 무엇인가의 부재 의식이다.

00:04:56.190 --> 00:04:59.547
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은
무언가의 부재 의식입니다.

00:04:59.647 --> 00:05:02.235
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은
무언가의 부재 의식.

00:05:02.335 --> 00:05:03.564
간단하죠.

00:05:03.664 --> 00:05:05.255
없어요, 있다가 없어요.

00:05:05.355 --> 00:05:06.522
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

00:05:06.622 --> 00:05:08.632
부재한 의식이니까 공허하게
느껴질 거 아니에요, 그렇죠?

00:05:08.732 --> 00:05:11.753
내가 여자친구가 있다가 없어
그러면 공허감이 느껴지는 거고.

00:05:11.853 --> 00:05:13.773
남자친구가 있다가 없어지면
공허감을 느끼는 거겠죠.

00:05:13.873 --> 00:05:17.402
무엇인가에 대한 욕망과
추구를 전제하지 않는 곳에

00:05:17.502 --> 00:05:22.327
부재가 의식될 수 없고, 무엇인가에
욕망과 추구를 전제하지 않는 곳에.

00:05:22.427 --> 00:05:23.715
즉, 무슨 말이야?

00:05:23.815 --> 00:05:25.550
욕망과 추구를 전제하지 않아.

00:05:25.650 --> 00:05:27.695

뭔가 내가 욕망하지
않아, 욕망하지 않아.

00:05:27.795 --> 00:05:32.844
그다음에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지
않는 곳에 부재가 의식될 수 없고.

00:05:32.944 --> 00:05:36.077
그러면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 건데
부재가 의식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.

00:05:36.177 --> 00:05:38.915
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욕망하고
있을 때 그것의 부재를

00:05:39.015 --> 00:05:40.837
인식하는 거죠.

00:05:40.937 --> 00:05:42.862
내가 여자친구가 있고 싶어.

00:05:42.962 --> 00:05:45.625
그러면 있고 싶어,
그걸 지향하잖아?

00:05:45.725 --> 00:05:46.838
그런데 지금 없단 말이야.

00:05:46.938 --> 00:05:48.215
그러면 부재를 인정하는 거죠.

00:05:48.315 --> 00:05:52.178
내가 여자친구 있고 싶다는 생각이
안 들어요, 욕망이 없어요.

00:05:52.278 --> 00:05:54.263
그러면 여자친구 없네, 공허하네.

00:05:54.363 --> 00:05:56.115
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겠죠.

00:05:56.215 --> 00:05:58.703
갈망과 추구는 언제나
어떤 대상을 전제하며.

00:05:58.803 --> 00:06:01.155
어떤 대상이 있어야지만 그
대상을 갈망하는 거죠.

00:06:01.255 --> 00:06:04.081
그래서 공허감은 필연적으로
어떤 대상의 부재가 가져오는

00:06:04.181 --> 00:06:05.668
좌절된 의식이다.

00:06:05.768 --> 00:06:06.328
간단한 겁니다.

00:06:06.428 --> 00:06:08.517
간단한 건데 어렵게

표현된 것 같아.

00:06:08.617 --> 00:06:11.686

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부재가 갖고 오는

00:06:11.786 --> 00:06:13.303

좌절된 의식이다.

00:06:13.403 --> 00:06:18.912

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열망, 욕망, 추구 이런 것들이 있었죠?

00:06:19.012 --> 00:06:23.268

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바로 공허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.

00:06:23.368 --> 00:06:27.148

그러나 모든 종류의 좌절된 욕망이 다 같이 공허감을

00:06:27.248 --> 00:06:28.338

일으키지는 않는다.

00:06:28.438 --> 00:06:31.364

좌절된 욕망이 모두 공허감을 일으키는 건 아니래요.

00:06:31.464 --> 00:06:35.145

배고픔과 빈곤,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사회적 실패는 다 같이

00:06:35.245 --> 00:06:38.838

욕망 좌절임에는 틀림없지만, 그러나 이러한 좌절 의식은

00:06:38.938 --> 00:06:41.481

공허감이 아니라 부족감을 느낀다.

00:06:41.581 --> 00:06:45.736

그러면 아까 배고픔, 빈곤, 사회적 실패 이런 것들은

00:06:45.836 --> 00:06:47.566

공허감이 아니라 부족감이에요.

00:06:47.666 --> 00:06:48.910

의미가 좀 차이가 있어야겠죠.

00:06:49.010 --> 00:06:52.920

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과

00:06:53.020 --> 00:06:55.947

그다음에 부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

00:06:56.047 --> 00:06:57.919

우리가 읽어내야겠죠.

00:06:58.019 --> 00:07:01.264

부족감은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
음식이나 돈이 생기거나

00:07:01.364 --> 00:07:05.142
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적
지위를 차지하면 해소된다.

00:07:05.242 --> 00:07:07.072
해소될 수 있어, 부족감은
해소될 수 있어.

00:07:07.172 --> 00:07:09.261
내가 돈 벌면 해소될
수 있는 거예요.

00:07:09.361 --> 00:07:10.827
그러나 공허감은 좀 달라요.

00:07:10.927 --> 00:07:15.400
성서에 찍어 있는 것처럼,
성서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

00:07:15.500 --> 00:07:18.406
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고,
물질적인 것으로만 살 수 없고.

00:07:18.506 --> 00:07:22.272
공자가 효도에 대해서 요즘 효도란
봉양만 잘하면 되는 줄 안다.

00:07:22.372 --> 00:07:25.094
그것쯤이야 개나 망아지도
할 수 있는 일인데,

00:07:25.194 --> 00:07:27.768
존경하지 않는다면 다를
때가 없지 않는가.

00:07:27.868 --> 00:07:30.678
개나 망아지나 사람이나
똑같다는 얘기가.

00:07:30.778 --> 00:07:32.022
뭐 하지 않으면?

00:07:32.122 --> 00:07:33.303
존경하지 않으면.

00:07:33.403 --> 00:07:36.373
말한 것처럼 인간은 정신적
동물로서 자신의 삶은 물론

00:07:36.473 --> 00:07:39.496
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 가치,
의미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

00:07:39.596 --> 00:07:41.227
유일하고 특수한 존재다.

00:07:41.327 --> 00:07:43.293
인간은 동물과 같이 뭘 추구해요?

00:07:43.393 --> 00:07:46.345

어떤 가치와 의미를 추구한다,
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.

00:07:46.445 --> 00:07:47.781

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거죠.

00:07:47.881 --> 00:07:51.387

그러므로 어떠한 인간도 공허감,
즉 삶이라고 하는 것,

00:07:51.487 --> 00:07:54.682

우주 그리고 모든 존재의 궁극적
의미 부재를 한 번이라도

00:07:54.782 --> 00:07:57.126

그리고 순간적이거나 느끼지
않을 수 없을 것 같다.

00:07:57.226 --> 00:08:01.255

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
뭐냐면 모든 인간은 정신적인

00:08:01.355 --> 00:08:04.319

존재이기 때문에 공허감, 이런
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.

00:08:04.419 --> 00:08:06.403

삶의 부재 이런 것들을
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.

00:08:06.503 --> 00:08:07.677

단순히 뭐가 부족해, 배고파.

00:08:07.777 --> 00:08:09.368

이것만 생각하는 게
인간이 아니잖아요.

00:08:09.468 --> 00:08:13.605

배고프면 먹고, 졸리면 자고 이거는
뭐 짐승이나 똑같은 거죠.

00:08:13.705 --> 00:08:15.185

생각하면 할수록 그렇다.

00:08:15.285 --> 00:08:18.838

아무리 만족스럽더라도 당신이나
남들이 한 일, 하고 싶은 일,

00:08:18.938 --> 00:08:21.258

앞으로 하게 될 일의 궁극적
의미를 생각해 보라.

00:08:21.358 --> 00:08:24.466

당신의 존재, 반복되는
삶과 죽음의 의미,

00:08:24.566 --> 00:08:27.960

자연 아니 모든 존재 전체의
궁극적 의미를 한번 따져보라.

00:08:28.060 --> 00:08:30.165

궁극적 의미를 따져보면
뭔가 느낄 것이다.

00:08:30.265 --> 00:08:33.199

그 의미가 어디에 있으며
언제 찾을 수 있겠는가.

00:08:33.299 --> 00:08:39.270

철학과 종교는 이러한 물음과
이러한 물음에 대한 탐구의

00:08:39.370 --> 00:08:41.181

두 가지 다른 표현이며
대답이기도 하다.

00:08:41.281 --> 00:08:45.083

결국은 그런 존재의 부재, 그런
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건

00:08:45.183 --> 00:08:47.727

바로 뭐냐면 철학과 종교다,
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

00:08:47.827 --> 00:08:50.146

제목이 뭐냐면 철학의
여백이라고 했으니까

00:08:50.246 --> 00:08:53.651

뭔가 철학에 대해서 좀 더
얘기하고 싶은 거겠죠?

00:08:53.751 --> 00:08:57.960

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
원시적이거나 철학적 사유가 있었고,

00:08:58.060 --> 00:09:00.872

어떤 형태로든 종교가 동서를
막론하고 존재했던 것은

00:09:00.972 --> 00:09:02.655

단순한 우연이 아니다. 왜?

00:09:02.755 --> 00:09:07.941

인간은 정신적 존재니까 부족감이
아니라 공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.

00:09:08.041 --> 00:09:10.368

정신적 가치의 부재를
느낀단 말이야.

00:09:10.468 --> 00:09:13.807

그러니까 종교도 있었을 거고,
철학도 있었을 것이다.

00:09:13.907 --> 00:09:15.035

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

00:09:15.135 --> 00:09:24.021

어떤 이들은 궁극적인 의미를

발견했다고 확신하고 있다.

00:09:24.121 --> 00:09:25.623
궁극적 의미를 발견했어.

00:09:25.723 --> 00:09:27.576
그러니까 종교, 철학 필요없어.

00:09:27.676 --> 00:09:29.951
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
있을 거란 얘기죠.

00:09:30.051 --> 00:09:34.333
종교적 신앙은 그러한 확신의 한
표현 형태다, 종교적 신앙은.

00:09:34.433 --> 00:09:37.414
따라서 그들로부터 공허감은
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.

00:09:37.514 --> 00:09:41.024
즉, 다시 말하면 종교적, 우리
결국 이제 철학의 여백에 대해서

00:09:41.124 --> 00:09:44.509
얘기하는 거니까 종교적
신앙, 의미를 찾았어.

00:09:44.609 --> 00:09:48.101
내 존재의 의미는 하느님이야,
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.

00:09:48.201 --> 00:09:50.261
그러면 그 사람들은
공허감이 사라진 거죠.

00:09:50.361 --> 00:09:52.376
종교적 의미를 찾았다는 얘기는.

00:09:52.476 --> 00:09:57.153
그러나 그러한 의미를 애타게
찾으면서도 발견한 것이라고는

00:09:57.253 --> 00:10:01.957
오직 의미 부재, 즉 공허감뿐이라고
말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.

00:10:02.057 --> 00:10:04.055
그런데도 불행한 사람이 적지 않다.

00:10:04.155 --> 00:10:07.911
인간의 삶, 자연의 모든 현상의
궁극적 의미가 정말 있으며

00:10:08.011 --> 00:10:11.983
그래서 공허란 느낄 필요가 없는
감정인가, 아니면 모든 것은

00:10:12.083 --> 00:10:13.838
사실 궁극적으로 공허한 것인가.

00:10:13.938 --> 00:10:16.296

공허함에 대해서 다시
한번 의문을 제기합니다.

00:10:16.396 --> 00:10:20.190

이러한 물음에 대한 결정적
대답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고

00:10:20.290 --> 00:10:23.522

그로부터 어떤 필연적 결론도
논리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.

00:10:23.622 --> 00:10:26.395

인간에게, 대답이
나와 있는 건 아니고

00:10:26.495 --> 00:10:30.188

어떤 필연적 결론도 논리적으로
그래,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은

00:10:30.288 --> 00:10:31.915

궁극적으로 공허한 거야.

00:10:32.015 --> 00:10:33.579

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할
수 없다는 거예요.

00:10:33.679 --> 00:10:35.597

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
나올 수 없다는 거죠.

00:10:35.697 --> 00:10:38.549

위와 같은 대답들에 대해서
인간으로서 내릴 수 있는

00:10:38.649 --> 00:10:42.704

절대적 확신은 아무
데도 없는 것이다.

00:10:42.804 --> 00:10:46.575

그 공허감을 해소할 수 있는
절대적인 것은 없는 것이다.

00:10:46.675 --> 00:10:50.075

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
공허감을 느껴본 사람은

00:10:50.175 --> 00:10:54.305

그런 것을 한 번도 느껴 보지
못한 사람보다 훨씬 인간답고

00:10:54.405 --> 00:10:55.480

그만큼 가치 있습니다.

00:10:55.580 --> 00:10:56.889

저도 가끔 느끼거든요.

00:10:56.989 --> 00:10:59.028

제가 느끼는 건 공복감인가요?

00:10:59.128 --> 00:11:02.315

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
느껴본 적이 없는 인간의 삶은

00:11:02.415 --> 00:11:05.343
공허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
인간의 삶보다 더 공허하다.

00:11:05.443 --> 00:11:06.342
말이 어렵죠?

00:11:06.442 --> 00:11:10.058
결국 공허감을 느껴야지만
진정한 인간인 거고,

00:11:10.158 --> 00:11:16.427
공허감을 느껴본 인간은 공허감을
느껴보지 못한 인간의 삶보다

00:11:16.527 --> 00:11:19.569
훨씬 더 뛰어나다,
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

00:11:19.669 --> 00:11:24.249
공허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의
삶은 훨씬 더 공허한 거다,

00:11:24.349 --> 00:11:25.392
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

00:11:25.492 --> 00:11:26.264
말장난 같죠?

00:11:26.364 --> 00:11:27.307
그런데 결국은 뭐야?

00:11:27.407 --> 00:11:30.483
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
정신적 가치에서 중요한 것이고,

00:11:30.583 --> 00:11:35.211
공허감을 느껴본 것이 오히려
더 높은 정신적 가치를

00:11:35.311 --> 00:11:37.812
가지고 있는 거다,
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11:37.912 --> 00:11:41.896
모든 궁극적 의미에 대한 욕망과
추구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

00:11:41.996 --> 00:11:44.604
구별시켜주는 가장
근본적인 특징이며,

00:11:44.704 --> 00:11:47.704
인간의 유일하며 각별한
존엄성의 근거가 된다.

00:11:47.804 --> 00:11:51.576
그렇다면 공허감을 느껴보지

못한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

00:11:51.676 --> 00:11:54.639

인간의 마스크를 쓴 개나
돼지와 다를 바 없다.

00:11:54.739 --> 00:11:58.118

공허감 못 느꼈던 사람 진짜 갑자기
깜짝 놀랐겠네요, 그렇지요?

00:11:58.218 --> 00:12:01.119

공허감 느껴보지 못한
인간은 인간이 아니라

00:12:01.219 --> 00:12:03.268

마스크를 쓴 개와 돼지와
다를 바가 없다.

00:12:03.368 --> 00:12:06.553

이런 점에서 행복한 돼지보다
불행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은

00:12:06.653 --> 00:12:07.893

영원한 진리가 된다.

00:12:07.993 --> 00:12:09.449

결국은 뭐가 필요한 거야?

00:12:09.549 --> 00:12:11.545

공허감을 느껴봐야 된다 이런 거죠.

00:12:11.645 --> 00:12:13.338

공허감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뭔데?

00:12:13.438 --> 00:12:15.844

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을 항상
가져야 된다, 이런 거야.

00:12:15.944 --> 00:12:19.651

그러므로 공허감은
삶의 의미를 인식하고

00:12:19.751 --> 00:12:21.482

그것을 발견하기 위한
첫째 조건이다.

00:12:21.582 --> 00:12:22.694

공허감이 필요하다는 거죠.

00:12:22.794 --> 00:12:28.092

그러므로 인간으로서 살아 있음을
확인하기 위해서 공허감 필요한데.

00:12:28.192 --> 00:12:30.693

우리한테는 공허감을 느낄
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

00:12:30.793 --> 00:12:32.929

정신적인 여백이 필요하다.

00:12:33.029 --> 00:12:35.487

그 공허감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

00:12:35.587 --> 00:12:38.572

다른 인간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려면,

00:12:38.672 --> 00:12:42.794

다른 동물과 다른 인간의 삶을 살려면 공허감을 느껴야 되는데

00:12:42.894 --> 00:12:47.079

공허감을 느끼려면 시간적 여유와 정신적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

00:12:47.179 --> 00:12:50.851

그러니까 하루 온종일, 여러분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고 이러면

00:12:50.951 --> 00:12:52.308

공허감 느낄 새가 없잖아요.

00:12:52.408 --> 00:12:55.444

선생님도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수업하다 보면

00:12:55.544 --> 00:12:56.935

공허감 느낄 새가 없잖아요.

00:12:57.035 --> 00:12:58.466

뭔가 여유가 있을 때.

00:12:58.566 --> 00:13:00.979

집에서 선생님이 맥주 한잔이라도 이렇게 하면서

00:13:01.079 --> 00:13:04.043

이렇게 살아서 뭐하나, 내가 왜 살고 있는 거지?

00:13:04.143 --> 00:13:07.078

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시간적 여백이 있는 거예요.

00:13:07.178 --> 00:13:10.692

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공허감을 느껴 볼 여유도 없이

00:13:10.792 --> 00:13:14.225

너나 할 것 없이 물질적 충만만을 위해서 서로 싸우면서 떠들고,

00:13:14.325 --> 00:13:18.131

만들고, 팔고, 살고, 소유하고, 소비하기만 바쁘다.

00:13:18.231 --> 00:13:20.963

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채워진 오늘의 삶은

00:13:21.063 --> 00:13:24.318

어떠한 삶보다도 더욱
공허해 보인다.

00:13:24.418 --> 00:13:28.117
물질적으로 채워진 삶은 더
공허해 보인다는 거죠.

00:13:28.217 --> 00:13:31.228
참다운 삶의 충만한
의미는 한 인간의 삶

00:13:31.328 --> 00:13:34.833
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에
궁극적 공허를 느꼈을 때만

00:13:34.933 --> 00:13:36.486
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?

00:13:36.586 --> 00:13:40.649
돈벌이나 출세, 자연의 개발이나
애국적 사업에 바쁘기만 했던

00:13:40.749 --> 00:13:43.757
활동을 잠시 잊고, 무한한
우주 공간의 공허와

00:13:43.857 --> 00:13:48.458
영원한 시간의 공허의 멀고도
은은한, 무한히 신비롭고 아름다운

00:13:48.558 --> 00:13:51.810
울림에 잠시 귀를 기울이고
그것이 깊고도 깊은 의미를

00:13:51.910 --> 00:13:53.419
잠깐이나마 생각해 보자.

00:13:53.519 --> 00:13:56.030
그게 바로 철학적인 여백을
느껴볼 필요가 있겠다.

00:13:56.130 --> 00:13:57.685
결국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?

00:13:57.785 --> 00:13:58.882
뭘 하자는 얘기에요?

00:13:58.982 --> 00:14:01.396
정신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
공허감을 느껴 봐야 된다.

00:14:01.496 --> 00:14:03.305
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.

00:14:03.405 --> 00:14:05.025
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

00:14:05.125 --> 00:14:07.384
철학적인 지문이라서
이게 무슨 말인가?

00:14:07.484 --> 00:14:09.679
이런 느낌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.

00:14:09.779 --> 00:14:13.573
문제 보면서 다시
한번 확인해 보죠.

00:14:13.673 --> 00:14:15.360
지문 소화제 보겠습니다.

00:14:15.460 --> 00:14:18.833
(가)에서 한 발짝 떨어진 위치에서
관조할 수 있는 인생의 여유를

00:14:18.933 --> 00:14:20.513
뜻하는 의미의 시어를 찾아보자.

00:14:20.613 --> 00:14:21.542
뭐니까?

00:14:21.642 --> 00:14:22.839
간격이겠죠.

00:14:22.939 --> 00:14:24.429
관조할 수 있는 인생의 여유.

00:14:24.529 --> 00:14:28.262
그다음에 2번을 보면 (나)에
따르면 공허감은 음식이나 돈이

00:14:28.362 --> 00:14:30.458
생기거나 특정한 목적을
달성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.

00:14:30.558 --> 00:14:32.224
아니죠, 그건
부족감이라고 얘기했잖아.

00:14:32.324 --> 00:14:33.421
X.

00:14:33.521 --> 00:14:37.204
(나)에서는 삶의 의미를
의식하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

00:14:37.304 --> 00:14:38.806
첫째 조건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?

00:14:38.906 --> 00:14:41.066
공허감을 느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.

00:14:41.166 --> 00:14:43.444
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14:43.544 --> 00:14:47.498
(가)와 (나)에 대한 설명으로
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.

00:14:47.598 --> 00:14:50.976
1번은 (가)는 대상을 인격화하여
의미를 부여하고 있다.

00:14:51.076 --> 00:14:55.036

대상을 인격화하고 있다는
것은 (가) 작품에서는

00:14:55.136 --> 00:14:59.523

나무가 어깨와 어깨를
대고 있다 그랬으니까.

00:14:59.623 --> 00:15:00.975

나무에 어깨가 없잖아요.

00:15:01.075 --> 00:15:02.996

그러니까 인격화하고
있는 거 맞고요.

00:15:03.096 --> 00:15:06.441

(가)는 자연물을 관찰하여 얻은
깨달음을 인간관계로 확장하고 있다.

00:15:06.541 --> 00:15:08.385

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로
하는 게 맞겠죠.

00:15:08.485 --> 00:15:11.641

그다음에 (나)는
생각을 부연하기 위해

00:15:11.741 --> 00:15:13.164

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.

00:15:13.264 --> 00:15:16.706

부연은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
누가 나왔냐면 공자도 나왔고요.

00:15:16.806 --> 00:15:19.344

그다음에 성서, 공자라고
얘기하면 되겠네요.

00:15:19.444 --> 00:15:22.907

(가)와 달리 (나)는
오늘날의 삶의 모습에 대해

00:15:23.007 --> 00:15:24.765

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.
맞죠.

00:15:24.865 --> 00:15:28.654

오늘날의 삶은 먹기 바쁘고,
부족감을 채우기 바쁘다.

00:15:28.754 --> 00:15:30.358

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적절합니다.

00:15:30.458 --> 00:15:34.532

(나)와 달리 (가)는 비교를 통해
주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.

00:15:34.632 --> 00:15:37.880

(나) 작품을 보면 (나)
작품은 (나)와 달리,

00:15:37.980 --> 00:15:40.548

(나)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로
비교되고 있는 거죠.

00:15:40.648 --> 00:15:45.690

집승과 인간이 비교되고 있고,
공허감을 느끼는 사람과

00:15:45.790 --> 00:15:50.600

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(가)와
(나) 모두 비교가 쓰였으니까

00:15:50.700 --> 00:15:53.931

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.

00:15:54.031 --> 00:15:57.750

(나)를 통해 알 수 있는
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?

00:15:57.850 --> 00:15:59.193

내용 일치 문제네요.

00:15:59.293 --> 00:16:03.197

모든 인간은 궁극적 의미 부채를
잠시나마 느낄 것이다.

00:16:03.297 --> 00:16:05.408

그게 바로 공허감이니까 적절하죠.

00:16:05.508 --> 00:16:07.143

느낄 것이다, 적절합니다.

00:16:07.243 --> 00:16:10.416

우리는 삶과 죽음의 궁극적 의미를
철학과 종교에서 찾기도 한다.

00:16:10.516 --> 00:16:11.558

맞죠?

00:16:11.658 --> 00:16:14.188

그래서 가끔 찾았다고 하는
사람은 종교에 들어간 사람,

00:16:14.288 --> 00:16:16.142

종교에 귀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.

00:16:16.242 --> 00:16:19.256

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만이 인간의
공허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.

00:16:19.356 --> 00:16:22.217

그렇죠, 공허감이라고 하는
것은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

00:16:22.317 --> 00:16:24.907

이런 건 오히려 부족감을
채우는 거잖아요.

00:16:25.007 --> 00:16:28.322

인간이 동물과 달리 존엄한 것은 궁극적

의미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.

00:16:28.422 --> 00:16:30.217
이게 바로 공허감을 채우는 거죠.

00:16:30.317 --> 00:16:35.567
참다운 삶의 의미에 대한 발견은
모든 것의 궁극적 공허를

00:16:35.667 --> 00:16:37.899
극복했을 때 가능한 게 아니고요.

00:16:37.999 --> 00:16:42.323
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을 채우려는 그
과정, 그 여유, 삶의 여유,

00:16:42.423 --> 00:16:44.433
여백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

00:16:44.533 --> 00:16:46.930
극복했을 때 가능하다는
게 아닙니다.

00:16:47.030 --> 00:16:49.416
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.

00:16:49.516 --> 00:16:52.896
3번, ㉠~㉢에 대한 설명으로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16:52.996 --> 00:16:54.227
㉠을 볼까요?

00:16:54.327 --> 00:16:58.606
㉠은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
이루는 줄 알았다 그랬으니까

00:16:58.706 --> 00:17:01.563
실체를 확인하기 전의 모습이죠.

00:17:01.663 --> 00:17:03.389
산불이 나기 전일 거 아니에요.

00:17:03.489 --> 00:17:05.467
㉠은 피상적 관찰 맞고요.

00:17:05.567 --> 00:17:07.488
㉢은 현실적 체험의 결과다.

00:17:07.588 --> 00:17:08.507
㉢은 뭔데?

00:17:08.607 --> 00:17:12.556
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
휩쓸고 간 다음에 알았다니까

00:17:12.656 --> 00:17:15.123
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
알았다는 거니까 맞죠.

00:17:15.223 --> 00:17:17.848

㉞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.

00:17:17.948 --> 00:17:18.847
아니죠.

00:17:18.947 --> 00:17:22.117
간격이니까 최대한 벌어진,
이건 긍정적이죠.

00:17:22.217 --> 00:17:23.311
그러니까 틀렸네.

00:17:23.411 --> 00:17:24.575
㉞은 바람직한 모습이다.

00:17:24.675 --> 00:17:26.332
㉞도 역시 마찬가지.

00:17:26.432 --> 00:17:28.816
㉞, ㉞ 둘 다
바람직한 모습이고요.

00:17:28.916 --> 00:17:30.937
㉞은 ㉞을 통해 알게 된 모습이다.

00:17:31.037 --> 00:17:33.246
㉞ 벌어진 대로 최대한 벌어진.

00:17:33.346 --> 00:17:35.323
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
알게 된 거니까 맞고.

00:17:35.423 --> 00:17:37.457
얼게 되는 동기이다, 적절하죠.

00:17:37.557 --> 00:17:41.419
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17:41.519 --> 00:17:45.092
4번, (나)의 글쓴이의 관점에서
(가)에 대해서 감상한 것으로

00:17:45.192 --> 00:17:48.408
가장 적절한 것을
찾으라고 되어 있는데.

00:17:48.508 --> 00:17:53.910
이게 여러분, 공허감이라고 하는
말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.

00:17:54.010 --> 00:17:57.432
그다음에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이
시간적 여유와 여백이 있을 때

00:17:57.532 --> 00:18:00.387
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글쓴이의
관점에서 (가)에 대해서

00:18:00.487 --> 00:18:03.345
감상해보라고 했으니까

공허감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.

00:18:03.445 --> 00:18:08.639

그다음에 앞에 간격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깨닫게 됐는지.

00:18:08.739 --> 00:18:10.191

그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.

00:18:10.291 --> 00:18:12.420

좀 문체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.

00:18:12.520 --> 00:18:13.404

1번 보자.

00:18:13.504 --> 00:18:16.753

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있는 것은

00:18:16.853 --> 00:18:20.013

공허감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이다.

00:18:20.113 --> 00:18:25.047

공허감을 느끼지 못한 인간이 아니고 서로 간의 차이를 모르는 거고,

00:18:25.147 --> 00:18:30.539

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, 어깨를 맞대고 있는 모습은

00:18:30.639 --> 00:18:35.269

우선 화자가 그냥 생각했던 모습이잖아요.

00:18:35.369 --> 00:18:38.112

화자가 생각했던 모습이고, 실제 본 모습은 아니죠.

00:18:38.212 --> 00:18:41.214

어깨와 어깨를 대고 있는 줄 알았다고 이제 화자가

00:18:41.314 --> 00:18:44.935

그냥 머릿속으로 잘못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니까

00:18:45.035 --> 00:18:46.920

그게 바로 공허감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한

00:18:47.020 --> 00:18:50.241

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기가 어렵죠.

00:18:50.341 --> 00:18:51.588

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.

00:18:51.688 --> 00:18:55.930

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을

보며 공허감을 느꼈기 때문에

00:18:56.030 --> 00:18:58.422

적당한 간격의 의미에
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다.

00:18:58.522 --> 00:19:00.743

이게 정답이 2번이 정답인데.

00:19:00.843 --> 00:19:02.030

숲을 봤죠?

00:19:02.130 --> 00:19:05.344

공허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
공허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

00:19:05.444 --> 00:19:07.306

저것의 의미가 뭘까?

00:19:07.406 --> 00:19:09.390

이걸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에요.

00:19:09.490 --> 00:19:12.397

즉, 공허감을 느꼈다는
얘기는 바로 뭐냐면

00:19:12.497 --> 00:19:19.953

참다운 어떤 의미, 참다운 의미에
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,

00:19:20.053 --> 00:19:25.063

그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
여유와 여백이 있었기 때문이다.

00:19:25.163 --> 00:19:28.848

그러니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,
그게 바로 공허감이라고 하는 거죠.

00:19:28.948 --> 00:19:31.855

그러니까 지나간 숲을 보면서
애가 공허감 느꼈어.

00:19:31.955 --> 00:19:34.431

그런 여유가 있고, 그러니까
이 사람이 여유가 있다,

00:19:34.531 --> 00:19:37.819

여유가 넘쳐, 이런 뜻이
아니라 무언가 고민할 수 있는

00:19:37.919 --> 00:19:39.463

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.

00:19:39.563 --> 00:19:41.414

고민할 수 있는 그
계기가 됐다는 거니까

00:19:41.514 --> 00:19:44.485

공허감 느꼈기 때문에
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.

00:19:44.585 --> 00:19:50.192

우리가 공허감이 있기 때문에
그래서 철학적으로 이렇게

00:19:50.292 --> 00:19:53.657

인간의 의미나 이런 걸 사유할
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깐요.

00:19:53.757 --> 00:19:58.343

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
간격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은

00:19:58.443 --> 00:20:01.393

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족감이
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.

00:20:01.493 --> 00:20:05.641

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
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

00:20:05.741 --> 00:20:09.701

이걸 몰랐다, 부족함이
해소되지 않았다.

00:20:09.801 --> 00:20:12.404

뭔가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는
얘기는 뭐예요?

00:20:12.504 --> 00:20:16.463

가난했기 때문에 이거를 몰랐다는
건 아니잖아요, 그렇죠?

00:20:16.563 --> 00:20:19.122

나무가 기어이 떨어져
서 있어야 하는 것은

00:20:19.222 --> 00:20:25.362

공허감을 느껴보려는 처절한 몸부림과
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
00:20:25.462 --> 00:20:30.159

떨어져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
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니까

00:20:30.259 --> 00:20:35.209

공허감을 느껴보려는 인간의 모습이
아니라, 연결되지 않겠네요.

00:20:35.309 --> 00:20:39.107

기꺼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
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

00:20:39.207 --> 00:20:43.394

서로 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관조와
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깐.

00:20:43.494 --> 00:20:46.218

여기에서는 문체가 뭐냐면
얘들아, 뒤에 나오는

00:20:46.318 --> 00:20:49.547

그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과
여기에서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

00:20:49.647 --> 00:20:52.033
어떤 부분이 연결되느냐만
찾으면 돼요.

00:20:52.133 --> 00:20:54.431
이건 지금 전부 다 연결이
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

00:20:54.531 --> 00:20:57.060
제가 이걸 억지로 설명하려니까
잘 안 되는 거거든요.

00:20:57.160 --> 00:20:58.502
연결 안 되는 것뿐이에요.

00:20:58.602 --> 00:21:02.468
나무가 울울창창 숲을 이룬다는
것은 물질적 충만만을 위해

00:21:02.568 --> 00:21:04.707
소비하기에만 바쁘,
말도 안 되는 거죠.

00:21:04.807 --> 00:21:08.966
울창한 숲을 이룬다는 게 물질적인
충만함을 이루기 위한 거다.

00:21:09.066 --> 00:21:11.300
그건 절대 아닌 거니까요.

00:21:11.400 --> 00:21:13.606
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은
이렇게만 보면 돼요.

00:21:13.706 --> 00:21:17.284
글쓴이의 관점이 뭐냐면 공허감을
느껴야 된다, 이렇게 얘기하죠.

00:21:17.384 --> 00:21:20.855
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기
위해서는 공허감을 느껴야 된다.

00:21:20.955 --> 00:21:24.330
그러면 여기 앞에 나오는 간격이라고
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

00:21:24.430 --> 00:21:29.110
바로 뭐냐면 산불이 일어나고 난
다음에 뭔가 의미를 고민했잖아요.

00:21:29.210 --> 00:21:31.192
그게 바로 공허감을 깨닫는 거예요.

00:21:31.292 --> 00:21:32.707
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.

00:21:32.807 --> 00:21:35.489
그렇게 이제 점점이 있기 때문에

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.

00:21:35.589 --> 00:21:37.687
그 점점만 찾아내시면 됩니다.

00:21:37.787 --> 00:21:43.820
마지막 실전 문제 다지기
여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.

00:21:43.920 --> 00:21:47.980
첫 번째 우라지오 가까운
항구에서라는 작품이고요.

00:21:48.080 --> 00:21:50.326
두 번째는 탈향이라서
엄청나게 기네요.

00:21:50.426 --> 00:21:51.334
탈향, 소설입니다.

00:21:51.434 --> 00:21:53.498
이호철의 작품으로 제가 기억하는데.

00:21:53.598 --> 00:21:55.062
우선 문제 잠깐 볼까요?

00:21:55.162 --> 00:21:58.969
문제 보면 1번, 보기는 선생님이
말씀하신 눈의 의미를 참고해서

00:21:59.069 --> 00:22:02.503
(가)의 눈보라와 (나)의 눈에
대한 의미와 기능을 생각해 보는

00:22:02.603 --> 00:22:04.296
학습활동입니다.

00:22:04.396 --> 00:22:07.099
㉠~㉡에 들어갈 말로
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.

00:22:07.199 --> 00:22:11.448
선생님이 뭐라고 하나면 시나
소설 속에서 눈의 함축적 의미는

00:22:11.548 --> 00:22:13.456
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.

00:22:13.556 --> 00:22:18.238
일반적으로 순수, 결백, 고난, 시련,
추억, 포용, 정화, 그리움.

00:22:18.338 --> 00:22:21.628
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 위에 나오는
눈의 의미가 뭐로 쓰였느냐.

00:22:21.728 --> 00:22:23.050
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.

00:22:23.150 --> 00:22:25.002
눈이 (가)와 (나)에서 각각

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

00:22:25.102 --> 00:22:26.275
살펴보도록 합시다.

00:22:26.375 --> 00:22:27.267
다 필요 없어요.

00:22:27.367 --> 00:22:29.412
어떤 의미이고, 기능인지
여기에서 한번,

00:22:29.512 --> 00:22:31.532
위의 작품에서 골라
봐라 이런 뜻입니다.

00:22:31.632 --> 00:22:35.072
(가)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
것을 골라 보라고 했는데.

00:22:35.172 --> 00:22:38.432
표현상 특징, (가) 작품의
표현상 특징 문제 풀면 되겠고.

00:22:38.532 --> 00:22:39.559
3번 볼까요?

00:22:39.659 --> 00:22:41.564
보기를 바탕으로 (가)를 감상한
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22:41.664 --> 00:22:44.071
이 내용입니다.

00:22:44.171 --> 00:22:48.235
이 시는 일제 강점하 강제 이주
정책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서

00:22:48.335 --> 00:22:51.245
이국 땅인 연해주에 머물러야
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가

00:22:51.345 --> 00:22:53.473
배경이 된 작품입니다.

00:22:53.573 --> 00:22:57.030
화자는 냉혹한 현실
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며

00:22:57.130 --> 00:23:00.313
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,
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

00:23:00.413 --> 00:23:03.737
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고
있는 내용이에요, 이 시가.

00:23:03.837 --> 00:23:06.848
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
서성이며 떠올린 따듯했던

00:23:06.948 --> 00:23:10.288

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은, 여기
과거 회상이 나와 있어요.

00:23:10.388 --> 00:23:11.796

이 시가 좀 어렵습니다.

00:23:11.896 --> 00:23:15.387

기억은 그러한 그리움의 마음을
더욱 심화시키고 있다.

00:23:15.487 --> 00:23:16.894

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

00:23:16.994 --> 00:23:19.507

4번은 (나)의 인물에 대한
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?

00:23:19.607 --> 00:23:21.387

등장인물이 누구인지 보셔야 됩니다.

00:23:21.487 --> 00:23:25.263

나하고 하원이, 두찬이, 광석이
이렇게 네 명 나오는 거

00:23:25.363 --> 00:23:26.906

확인하고 가셔야죠, 여러분.

00:23:27.006 --> 00:23:28.865

이해로 적절하지 않은
것은이라고 했으니까.

00:23:28.965 --> 00:23:30.206

5번 볼게요.

00:23:30.306 --> 00:23:32.412

[A], [B]에 대한
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00:23:32.512 --> 00:23:33.730

좀 어렵습니다, 여러분.

00:23:33.830 --> 00:23:36.565

왜? 소설이랑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
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요.

00:23:36.665 --> 00:23:38.220

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.

00:23:38.320 --> 00:23:42.449

우선 우라지오 가까운
항구에서라고 했는데.

00:23:42.549 --> 00:23:45.234

이 우라지오가 어디냐면
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합니다.

00:23:45.334 --> 00:23:48.830

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명을
우라지오라고 한다고 하네요.

00:23:48.930 --> 00:23:51.995

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의
유랑민의 삶의 모습입니다.

00:23:52.095 --> 00:23:53.683

가볼게요.

00:23:53.783 --> 00:23:56.642

삽살개 짖는 소리, 청각적
이미지가 나왔죠.

00:23:56.742 --> 00:24:00.088

눈보라에 얼어붙은 선달 그림입니다.

00:24:00.188 --> 00:24:05.925

선달 그림은 12월 31일이겠죠.

00:24:06.025 --> 00:24:09.912

12월 31일이니까
이제 한겨울이고요.

00:24:10.012 --> 00:24:13.836

그다음에 설날을 앞두고 있는 거고.

00:24:13.936 --> 00:24:14.884

아무튼 추워요.

00:24:14.984 --> 00:24:16.949

눈보라에 얼어붙은 선달 그림입니다.

00:24:17.049 --> 00:24:20.369

밤이 알곳은 손을
하도 곱게 흔들길래.

00:24:20.469 --> 00:24:22.069

밤이 흔들었어요, 의인화가 쓰였죠.

00:24:22.169 --> 00:24:26.881

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
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.

00:24:26.981 --> 00:24:28.713

불타는 소원이 바로 뭘까요?

00:24:28.813 --> 00:24:32.243

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
우리의 지금 말로,

00:24:32.343 --> 00:24:34.136

구어체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.

00:24:34.236 --> 00:24:38.518

술 먹다가 삽살개 짖는 소리가
들리고, 눈보라 얼어붙은 선달 그림날

00:24:38.618 --> 00:24:41.574

술을 먹다가 술 마셔 불타는 소원.

00:24:41.674 --> 00:24:46.340

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막
밤이 유혹한 것 같아.

00:24:46.440 --> 00:24:49.679

밤 늦게 술을 먹다가 고향이
너무 그리워서 부두로 왔다

00:24:49.779 --> 00:24:51.118

이 얘기에요, 결국은.

00:24:51.218 --> 00:24:53.774

그러니까 술 마시다 부두로
왔다 이런 뜻입니다.

00:24:53.874 --> 00:24:56.385

그 이야기를 시적으로
바꾼 것 뿐이죠.

00:24:56.485 --> 00:25:00.015

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
동원해서 바꾼 것뿐이죠.

00:25:00.115 --> 00:25:04.801

그러니까 뭐냐면 술 마시다 고향이
그리워서 왔어, 이런 뜻이에요.

00:25:04.901 --> 00:25:09.088

그다음, 걸어온 길가에
찢레 한 송이도 없었대도.

00:25:09.188 --> 00:25:11.492

걸어온 길가라고 하는
것은 두 가지 뜻인데,

00:25:11.592 --> 00:25:14.192

이 부두까지 걸어온 길도 되겠고요.

00:25:14.292 --> 00:25:16.648

아니면 지금까지의
삶의 여정도 됩니다.

00:25:16.748 --> 00:25:18.366

이 두 가지 증의법이 쓰였어요.

00:25:18.466 --> 00:25:21.747

걸어온 길가에 찢레 한
송이가 없었더라도.

00:25:21.847 --> 00:25:24.939

찢레 한 송이는 뭐냐면 꽃
한 송이 없었더라도.

00:25:25.039 --> 00:25:28.630

삶의 어떤 희망이라든가
기쁨이라든가 소박한 행복이라든가

00:25:28.730 --> 00:25:32.225

그런 거 한 송이 없었더라도
나의 아롱범은.

00:25:32.325 --> 00:25:33.787

아롱범이 좀 어렵습니다.

00:25:33.887 --> 00:25:36.108
단어 뜻이 표범이라는 뜻인데요.

00:25:36.208 --> 00:25:40.035
이거는 표범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, 화자의 자아의 모습입니다.

00:25:40.135 --> 00:25:41.804
이거 좀 외워두세요, 여러분.

00:25:41.904 --> 00:25:44.925
나의 아롱범은 자옥 자옥을
뉘우칠 줄 모른다.

00:25:45.025 --> 00:25:49.570
지나온 삶의 소소한 행복,
작은 기쁨조차 없었지만

00:25:49.670 --> 00:25:52.476
나는 뉘우치지 않겠다, 그냥
행복했다, 이런 뜻이에요.

00:25:52.576 --> 00:25:54.132
그러니까 뉘우칠 줄 모른다.

00:25:54.232 --> 00:25:56.952
어깨에 쌓여도 하얀
눈이 무겁지 않고나.

00:25:57.052 --> 00:25:59.394
지난날의 삶에 대한 당당함이
묻어 있는 거예요.

00:25:59.494 --> 00:26:03.639
잘 살아 왔어, 그래 김태동
잘 살았어, 그래 팬찮아.

00:26:03.739 --> 00:26:06.162
이런 생각이죠.

00:26:06.262 --> 00:26:09.177
철없는 누이 고수머털랑 어루만지며.

00:26:09.277 --> 00:26:11.698
갑자기 누이가 등장하니까 장면이
바뀌었습니다, 여러분.

00:26:11.798 --> 00:26:14.564
철없는 누이 고수머털랑,
곱슬머리입니다.

00:26:14.664 --> 00:26:18.879
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기를
캐고 싶던 밤이면 어머니는.

00:26:18.979 --> 00:26:20.285
과거 회상입니다.

00:26:20.385 --> 00:26:22.782
여기에서부터 과거
회상이 나타나네요.

00:26:22.882 --> 00:26:26.521
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나면
어머니 우라지오는 어때요?

00:26:26.621 --> 00:26:28.885
우라지오가 어디라고 되어 있니?

00:26:28.985 --> 00:26:29.947
블라디보스토크 맞죠?

00:26:30.047 --> 00:26:31.545
우라지오가 어때요, 엄마?

00:26:31.645 --> 00:26:34.700
어머니 저기는 어떻게 가볼 만해요,
이런 걸 여쭙봤나 봐요, 어렸을 때.

00:26:34.800 --> 00:26:38.245
우리 어머니 서투른 마우재
말도, 러시아 말입니다.

00:26:38.345 --> 00:26:39.775
마우재 말도 들려주셨지.

00:26:39.875 --> 00:26:44.036
이렇게 말하고 그랬어,
뭐 이런 거예요.

00:26:44.136 --> 00:26:49.434
어렸을 적 어머니가 나에게 얘기해주는
그 우라지오라고 하는 곳은

00:26:49.534 --> 00:26:53.309
어렸을 때는 바로 이제
동경의 대상이었을 거예요.

00:26:53.409 --> 00:26:55.186
계속 묻고 싶었잖아, 묻고 싶었어.

00:26:55.286 --> 00:26:57.506
그다음에 어머니가 그
말도 들려주셨다니까

00:26:57.606 --> 00:27:01.021
거기는 어떤 곳일까 이런 생각을
어렸을 때 계속 했었나 봐.

00:27:01.121 --> 00:27:03.559
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고향을
잃었으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.

00:27:03.659 --> 00:27:07.517
졸음졸음 귀 밝히는
누이가 잠들 때꺼정

00:27:07.617 --> 00:27:09.831
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.

00:27:09.931 --> 00:27:12.096
어머니가 그 이야기를

들려주신 거예요.

00:27:12.196 --> 00:27:14.327

과거 회상이 나타났고요.

00:27:14.427 --> 00:27:17.522

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감는다
그랬으니까 의인화도 쓰였겠죠.

00:27:17.622 --> 00:27:21.645

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어머니의
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.

00:27:21.745 --> 00:27:25.209

다시 내게로 헤어든다는 생각은
어머니의 생각이 나는 거죠.

00:27:25.309 --> 00:27:28.504

어머니 생각이 나고, 어머니의
입김, 어머니가 말씀하셨던

00:27:28.604 --> 00:27:32.041

그 입김조차도 무지개처럼
아른거리고 있는 거예요.

00:27:32.141 --> 00:27:34.301

그때 그 모습이 그리워서
아른거리고 있는 거죠.

00:27:34.401 --> 00:27:38.511

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
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.

00:27:38.611 --> 00:27:42.535

~의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~라는
으로 해석하면 잘 되거든요.

00:27:42.635 --> 00:27:45.949

어린 기억이라는 새야,
진짜 새가 아니야.

00:27:46.049 --> 00:27:50.307

귀성스럽다, 귀하고 성스럽다 이런
뜻인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.

00:27:50.407 --> 00:27:53.965

제법 구수한 데가 있다, 귀하다
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.

00:27:54.065 --> 00:27:56.284

어린 기억이라는 새야 귀하다.

00:27:56.384 --> 00:28:01.550

기다리지 말고 마음이라는
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어라.

00:28:01.650 --> 00:28:02.649

무슨 얘기야?

00:28:02.749 --> 00:28:04.545

기억을 털어내라, 이런 뜻이에요.

00:28:04.645 --> 00:28:08.324

마음이라는 은줄에, 내
마음에 날개를 털어라.

00:28:08.424 --> 00:28:09.913

왜? 기억을 털어내라.

00:28:10.013 --> 00:28:14.010

하나하나 그때 기억을 떠올리고 싶다,
이런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.

00:28:14.110 --> 00:28:15.094

어렵죠?

00:28:15.194 --> 00:28:17.709

다시, 나는 그 모두를
살뜰히 담았으니

00:28:17.809 --> 00:28:20.836

어린 기억이라는 새야
귀하고 성스럽다.

00:28:20.936 --> 00:28:25.450

기다리지 말고 마음이라는 은줄에,
내 마음에 작은 날개를 털어줘라.

00:28:25.550 --> 00:28:28.662

그때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게
해줘라, 이런 뜻이에요.

00:28:28.762 --> 00:28:34.254

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,
이게 절망적인 현실이죠.

00:28:34.354 --> 00:28:35.993

다시 고향으로 갈 수
없는 거니까 현실입니다.

00:28:36.093 --> 00:28:40.009

부두에 호젓 선 나는
멧비둘기가 아니건만.

00:28:40.109 --> 00:28:41.753

멧비둘기는 화자에 대조되는 거죠.

00:28:41.853 --> 00:28:44.229

멧비둘기는 자유롭게
날아가는 거잖아요.

00:28:44.329 --> 00:28:45.682

날아갈 수 있지만,
나는 못 날잖아요.

00:28:45.782 --> 00:28:46.969

그러니까 화자와 대조됐어.

00:28:47.069 --> 00:28:48.660

날고 싶어 날고 싶어.

00:28:48.760 --> 00:28:51.426

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
그곳, 고향이죠.

00:28:51.526 --> 00:28:54.755
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처럼 두껍다.

00:28:54.855 --> 00:28:57.619
얼음이 두껍다고 하면 배가
드나들 수 없는 거예요.

00:28:57.719 --> 00:29:02.089
얼음이 두껍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
자신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고,

00:29:02.189 --> 00:29:06.245
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을
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.

00:29:06.345 --> 00:29:07.613
이해됩니까?

00:29:07.713 --> 00:29:11.147
등대와 나와, 이것도 역시
감정 이입 가능하네요.

00:29:11.247 --> 00:29:13.694
서로 속삭일 수 없는
생각에 잠기고.

00:29:13.794 --> 00:29:16.218
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찌인다.

00:29:16.318 --> 00:29:19.129
밤이 깊어갈수록
그리움이 더 깊어진다.

00:29:19.229 --> 00:29:23.007
이 말을 밤이 나를 계속 찌시고
있다, 알팍한 꿈을 찌시고 있다.

00:29:23.107 --> 00:29:25.297
너 집에 가고 싶지,
가고 싶은 거 아니야?

00:29:25.397 --> 00:29:28.959
이렇게 나한테 찌인다는 얘기는
밤이 점점 깊어갈수록

00:29:29.059 --> 00:29:32.998
내가 점점 더 고향에 가고 싶다,
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.

00:29:33.098 --> 00:29:35.983
가도 오도 못할, 가지도 못하고.

00:29:36.083 --> 00:29:41.128
또 고향 사람들이 어머니하고
동생이 오지도 못할 우라지오라고

00:29:41.228 --> 00:29:44.909
얘기하면서 명사형으로 종결하면서

여운을 주고 있습니다.

00:29:45.009 --> 00:29:47.714

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
나타내고 있는 거고.

00:29:47.814 --> 00:29:50.289

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
보니까 우라지오라고 하는

00:29:50.389 --> 00:29:53.666

그 배경 자체가 또 시간적
배경 자체가 밤이잖아요.

00:29:53.766 --> 00:29:56.079

시간적, 계절적 배경
자체가 겨울이잖아요.

00:29:56.179 --> 00:29:59.435

절망적인 상황이고, 이주민으로서
다시 고향에 갈 수 없는

00:29:59.535 --> 00:30:01.638

그 절망적인 상황을
드러내고 있는 거니까

00:30:01.738 --> 00:30:05.178

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

00:30:05.278 --> 00:30:07.537

그다음에 탈향입니다.

00:30:07.637 --> 00:30:09.318

제목 자체가 탈향인데요.

00:30:09.418 --> 00:30:10.321

상당히 길어요.

00:30:10.421 --> 00:30:14.688

탈향이라고 하는 그 작품
자체의 의미를 보니까

00:30:14.788 --> 00:30:16.334

고향을 벗어난 거잖아요, 그렇죠?

00:30:16.434 --> 00:30:17.970

고향을 벗어난 거니까.

00:30:18.070 --> 00:30:22.406

미리 얘기하면 등장인물
네 명은 고향을 떠나와서

00:30:22.506 --> 00:30:25.903

부산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
6.25 전쟁 때 피난 오면서

00:30:26.003 --> 00:30:28.984

이렇게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
인물들 간의 갈등이나

00:30:29.084 --> 00:30:30.181

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.

00:30:30.281 --> 00:30:31.242
가볼게요.

00:30:31.342 --> 00:30:33.637
하룻밤 신세를 진 화차간은.

00:30:33.737 --> 00:30:38.779
화차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차에서
화물을 담아 놓는 칸 있죠.

00:30:38.879 --> 00:30:42.750
문 이렇게 짝 이렇게 열면
거기 화물칸 이렇게 있잖아요.

00:30:42.850 --> 00:30:44.783
거기에서 애네가 밤을
지새우고 있는 거거든.

00:30:44.883 --> 00:30:48.398
화차간은 이튿날 곧잘
어디론가 없어지곤 했다.

00:30:48.498 --> 00:30:52.366
왜? 당연히 어디론가 화물차
싣고 가는 거잖아요.

00:30:52.466 --> 00:30:54.045
그러니까 이튿날 사라지곤 했죠.

00:30:54.145 --> 00:30:57.589
그러니까 정착을 했지만, 그
정착지가 안정적인 곳이 아니에요.

00:30:57.689 --> 00:31:02.114
화차간에서 그냥 밤이슬이나 피할
정도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으니까.

00:31:02.214 --> 00:31:05.129
더러는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
이 화차 저 화차 자리를

00:31:05.229 --> 00:31:06.353
움겨 잡아야 했다.

00:31:06.453 --> 00:31:07.395
왜? 움직이니깐요.

00:31:07.495 --> 00:31:09.752
자리를 잡고 누우면
그런대로 흐뭇했다.

00:31:09.852 --> 00:31:11.443
나이 어린 나와 하원이야.

00:31:11.543 --> 00:31:13.525
나가 등장했고,
하원이야 등장했어요.

00:31:13.625 --> 00:31:14.788

이 두 명이 나이가 어려요.

00:31:14.888 --> 00:31:16.988

내가 19살, 하원이가
18살입니다.

00:31:17.088 --> 00:31:22.076

가운데 두찬이와 광석이가,
둘은 친구예요.

00:31:22.176 --> 00:31:23.712

양 가장자리에 눕곤 했다.

00:31:23.812 --> 00:31:25.871

이상한 기척이 나서
밤중에 눈을 떠 보면

00:31:25.971 --> 00:31:28.933

우리가 누운 화차간은 또 화통에
매달려 달리곤 하였다.

00:31:29.033 --> 00:31:31.228

야야, 깨 빨리 하면서
뛰어내려야 되잖아요.

00:31:31.328 --> 00:31:33.615

자다가 말고 뛰어내려야 했다.

00:31:33.715 --> 00:31:35.306

광석이는 번번이 실수를 했다.

00:31:35.406 --> 00:31:39.379

화차 가는 쪽이 아니라
반대쪽으로 뛰곤 했다.

00:31:39.479 --> 00:31:40.751

화차 가는 쪽으로 뛰어야 되는데.

00:31:40.851 --> 00:31:45.091

내리고 보면 초량 제4부두 앞이기도
했고, 부산진역 앞이기도 했다.

00:31:45.191 --> 00:31:46.611

계속 움직이는 거니까.

00:31:46.711 --> 00:31:50.020

이 화차 저 화차 기웃거리며 또
다른 빈 화차를 찾아들어야 했다.

00:31:50.120 --> 00:31:53.746

이 노릇이라구야 이건 견디젠.

00:31:53.846 --> 00:31:55.328

사투리입니다.

00:31:55.428 --> 00:31:56.220

이북 사투리죠, 북한 사투리.

00:31:56.320 --> 00:32:01.817

이 노릇이라구야 이건 견디젠,
견딜 수 있겠냐, 우리?

00:32:01.917 --> 00:32:03.161
견딜 수 있겠어?

00:32:03.261 --> 00:32:04.271
에이 망할 놈의.

00:32:04.371 --> 00:32:06.974
광석이는 누구에라 없이
짜증을 부리곤 했다.

00:32:07.074 --> 00:32:08.355
광석이의 성격.

00:32:08.455 --> 00:32:09.705
짜증을 부리고 있습니다.

00:32:09.805 --> 00:32:13.040
광석이 뛰어내리는 거
계속 실수하고 있어요.

00:32:13.140 --> 00:32:14.833
그러나 이튿날 아침이 되면
어김없이 넷은 가지런히

00:32:14.933 --> 00:32:16.985
제3부두를 찾아 또 갔습니다.

00:32:17.085 --> 00:32:20.021
가지런히 밥장수 아주머니 앞에
앉아 조반을 사 먹었다.

00:32:20.121 --> 00:32:21.024
다 먹어라, 응.

00:32:21.124 --> 00:32:22.288
더 먹어, 너 더 먹어.

00:32:22.388 --> 00:32:31.127
서로 같이 연민, 불쌍하게 서로
챙겨주고 있는 거죠.

00:32:31.227 --> 00:32:32.643
더 먹어라, 응.

00:32:32.743 --> 00:32:35.335
넷이 함께 이제 고향을
떠나서 내려왔거든요.

00:32:35.435 --> 00:32:38.868
콩치 토막일 망정 좋은 반찬은
서로 양보들을 했어.

00:32:38.968 --> 00:32:41.043
처음에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.

00:32:41.143 --> 00:32:44.351
어두운 화차간 속에서 막걸리
사발이나 받아다 마시면

00:32:44.451 --> 00:32:45.913

넷이 법석대곤 했다.

00:32:46.013 --> 00:32:49.139

우리들 중 가장 어린 하원이는
늘 무언가 풀어헤치듯.

00:32:49.239 --> 00:32:50.586

부산은 눈두 안 온다.

00:32:50.686 --> 00:32:52.621

여기에서는 눈은 바로
떨 뜻하는 거냐면

00:32:52.721 --> 00:32:54.680

이북에서는 눈이 많이
왔거든요, 애 고향에서는.

00:32:54.780 --> 00:32:57.609

그러니까 눈은 여기에서
고향을 떠올리는 거예요.

00:32:57.709 --> 00:33:00.722

잉 어잉 아야, 벌써 자니
이 새끼 벌써 자니?

00:33:00.822 --> 00:33:01.829

진짜, 잉.

00:33:01.929 --> 00:33:03.793

광석이 아저씨네 움물 말이다.

00:33:03.893 --> 00:33:05.099

눈 오문 말이다.

00:33:05.199 --> 00:33:06.781

뒤에 상나무 있잖니?

00:33:06.881 --> 00:33:08.564

하얀 양산처럼 되는, 잉.

00:33:08.664 --> 00:33:10.801

한 번은 이른 새벽이었는데
장자 골집 형수,

00:33:10.901 --> 00:33:14.289

물을 첫 바가지 푸는데
푸뜩 눈 멍치가 떨어졌다.

00:33:14.389 --> 00:33:16.128

그 형수 뒷머리를 덮었다.

00:33:16.228 --> 00:33:19.009

눈 떨 생각은 앓구
하하하 웃는단 말이다.

00:33:19.109 --> 00:33:20.709

원래가 그 형수 잘 웃잖니.

00:33:20.809 --> 00:33:23.630

옛날 생각하는 거죠, 옛날
고향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.

00:33:23.730 --> 00:33:29.576

광석이는 히죽히죽 웃으면서
토백이 반원 새끼들.

00:33:29.676 --> 00:33:36.564

토백이 반원이 뭐냐면 애네가
이제 거기에서 짐 나르는 일,

00:33:36.664 --> 00:33:38.200

뭐 이런 일을 하거든요.

00:33:38.300 --> 00:33:40.046

그러니까 여기가 부산을
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

00:33:40.146 --> 00:33:42.368

부산에 있는 사람들을
얘기하는 거야.

00:33:42.468 --> 00:33:44.371

우리 사촌끼리냐고 묻더구나.

00:33:44.471 --> 00:33:48.240

그렇다니까, 그러냐구 어찌구
그 꼬락서니라구야.

00:33:48.340 --> 00:33:49.735

이 새끼 벌써 취했?

00:33:49.835 --> 00:33:51.729

조금 사이를 두고 언제 고향 가지?

00:33:51.829 --> 00:33:55.072

두찬이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,
이제 금방 가게 되잖으리.

00:33:55.172 --> 00:33:57.653

이것도 다 좋은 경험이다,
암 그렇구말구.

00:33:57.753 --> 00:33:59.842

우리, 동네 갈 때는 꼭
같이 가야 된다, 알겐?

00:33:59.942 --> 00:34:00.914

사이 좋아요.

00:34:01.014 --> 00:34:01.990

아무렴 여부 있니.

00:34:02.090 --> 00:34:04.019

우리 넷이 여기에서
떨어지다니, 그럴 수가.

00:34:04.119 --> 00:34:05.054

벼락을 맞을 소리지.

00:34:05.154 --> 00:34:06.500

허허허, 기분 좋다
우리 더 마실까?

00:34:06.600 --> 00:34:08.172

한 사발씩만 더, 딱 한 사발씩.

00:34:08.272 --> 00:34:09.652

되게 좋아요.

00:34:09.752 --> 00:34:12.152

다시 귀향을 같이 할
거라고 생각한 거예요.

00:34:12.252 --> 00:34:14.440

광석이는 쨍한 소리로
노래를 불렀고,

00:34:14.540 --> 00:34:18.099

두찬이는 화차 벽을 두드리며
둔하게 장단을 맞추었다.

00:34:18.199 --> 00:34:21.505

하원이는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했고,
술을 한 병 더 받아온다.

00:34:21.605 --> 00:34:24.984

담배를 사 온다, 나는 굶아떨어져서
잠이 들어버리곤 했다.

00:34:25.084 --> 00:34:27.983

어느 날 저녁 광석이는 작업반
반장을 끌고 왔어요.

00:34:28.083 --> 00:34:31.735

두찬이는 화차간에 벌렁 누운
채 아는 체도 안 했다.

00:34:31.835 --> 00:34:33.078

뭔가 마음에 안 들어.

00:34:33.178 --> 00:34:34.968

아는 체 안 했다, 이런
것들 놓치면 안 되죠.

00:34:35.068 --> 00:34:37.919

하원이는 귀빈이라도 온
듯이 꽤나 대견스러워했다.

00:34:38.019 --> 00:34:39.496

작업반 반장이면 좀
높은 사람이잖아요.

00:34:39.596 --> 00:34:42.044

광석이는 술 몇 사발
값이나 내놓았다.

00:34:42.144 --> 00:34:43.867

하원이는 곧 술을 받으러 갔고.

00:34:43.967 --> 00:34:45.714

겸해서 초 한 자루도 사 왔다.

00:34:45.814 --> 00:34:49.176

그제서야 두찬이는
마지못해 일어나 앉았다.

00:34:49.276 --> 00:34:50.472
이러고 어째 사노?

00:34:50.572 --> 00:34:51.666
반장이 저꼴였다.

00:34:51.766 --> 00:34:53.085
부산 사투리죠?

00:34:53.185 --> 00:34:55.097
이것도 다 경험임넨다.

00:34:55.197 --> 00:34:56.862
광석이는 공손히 대답했다.

00:34:56.962 --> 00:34:59.650
그러자 벌컥 성난 소리로
참례 마소, 참견 마소.

00:34:59.750 --> 00:35:01.456
그러니 어떻게 해야잖나?

00:35:01.556 --> 00:35:02.646
밤낮 이러고 있을라나.

00:35:02.746 --> 00:35:04.399
참례 말라는데 참례할 게 뭐 있어?

00:35:04.499 --> 00:35:06.837
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,
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

00:35:06.937 --> 00:35:08.797
뭔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
틀어질 것 같죠?

00:35:08.897 --> 00:35:10.431
반장은 조금 뒤에 곧 자리를 떴다.

00:35:10.531 --> 00:35:12.076
광석이는 배웅까지 하고 돌아왔다.

00:35:12.176 --> 00:35:14.019
두찬이 넌 그리 고집을 부리니?

00:35:14.119 --> 00:35:15.177
머이 고집이야.

00:35:15.277 --> 00:35:16.465
에이 참 딱해서.

00:35:16.565 --> 00:35:19.554
타향 나와서 첫째, 사교성이 좋고
주변머리가 있어야 하는 건데.

00:35:19.654 --> 00:35:22.101
광석이는 혼잣소리처럼 꿍얼댔다.

00:35:22.201 --> 00:35:25.462

그러니까 광석이는 사교성이
있는 친구인 걸 알 수 있죠.

00:35:25.562 --> 00:35:28.232

두찬이는 참견하지 말아요,
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

00:35:28.332 --> 00:35:30.175

두찬이는 그게 좀 마음에
안 드는 거야.

00:35:30.275 --> 00:35:31.796

둘 사이가 깨지고 있습니다.

00:35:31.896 --> 00:35:33.785

두찬이와 광석이는 스물네 살이었다.

00:35:33.885 --> 00:35:36.773

그러나 두찬이 편이 네댓
살은 더 들어 보였다.

00:35:36.873 --> 00:35:38.955

흰칠하게 큰 키에 알맞게
뚱뚱한 것이며,

00:35:39.055 --> 00:35:41.039

검은 얼굴에 뒤룩뒤룩한 눈.

00:35:41.139 --> 00:35:42.829

묘사가 쓰였습니다, 얼굴 묘사.

00:35:42.929 --> 00:35:45.406

두꺼운 입술, 술 사발이나
들어가면 둔하게 왁자지껄하지만

00:35:45.506 --> 00:35:46.851

여느 때는 통히 말이 없었다.

00:35:46.951 --> 00:35:48.986

광석이는, 두찬이 나왔고.

00:35:49.086 --> 00:35:52.720

광석이는 키는 큰 편이나 좀
여위었고, 까무잡잡한 바탕에

00:35:52.820 --> 00:35:56.259

오뎅 선 콧대, 작은 눈, 얇은
입술에 설 새 없이 날름거리는

00:35:56.359 --> 00:35:58.724

햇바닥 하며, 흥가분한
걸음걸이 진득한 데라고는

00:35:58.824 --> 00:36:00.634

눈을 찌고 보자고 해도
찾아볼 수 없어.

00:36:00.734 --> 00:36:03.348

그러니까 되게 사교성이 있고,
그 주변의 부산 사람들,

00:36:03.448 --> 00:36:04.938
아까 그 반원들 있잖아요.

00:36:05.038 --> 00:36:06.903
반원들하고 편하게 잘
지내는 거예요.

00:36:07.003 --> 00:36:10.867
그랬더니 두찬이가 샘을 내는 건지
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거죠.

00:36:10.967 --> 00:36:13.072
두찬이 우리끼리 이렇게
잘 지내야 되는 건데.

00:36:13.172 --> 00:36:15.223
하원이는 나보다 한 살
밀이어서 열여덟 살이었다.

00:36:15.323 --> 00:36:17.721
어디서나 입을 헤에
벌리고 있곤 했다.

00:36:17.821 --> 00:36:21.364
중공군이 밀려온다는 바람에 무턱대고
배 위에 올라타긴 했으나.

00:36:21.464 --> 00:36:22.082
과거 회상입니다.

00:36:22.182 --> 00:36:23.344
과거 회상이예요.

00:36:23.444 --> 00:36:24.697
무턱대고 배 위에 올라탔어.

00:36:24.797 --> 00:36:27.071
중공군이 오니까 피신을,
내려와야 되잖아요, 피난을.

00:36:27.171 --> 00:36:29.451
도시 막막하던, 도대체
막막하던 것이어서

00:36:29.551 --> 00:36:32.857
바다 위에서 우리 넷이 만났을
때는 사실 미칠 것처럼 반가웠다.

00:36:32.957 --> 00:36:35.149
같이 올라타서 내려온
게 아닌가 봐요.

00:36:35.249 --> 00:36:36.485
너도 탔구나, 너도, 너도.

00:36:36.585 --> 00:36:39.154
배 칸에서 하루 저녁을
지나 이튿날 아침에는

00:36:39.254 --> 00:36:41.346

부산 거리에 부리어졌다, 내려졌다.

00:36:41.446 --> 00:36:44.907

넛이 다 타향 땅은 처음이라
마주 건너다보며 어리둥절했다.

00:36:45.007 --> 00:36:46.541

너는 왔구나.

00:36:46.641 --> 00:36:47.725

그래, 잘됐다.

00:36:47.825 --> 00:36:50.328

우리 넛이 어떻게 힘내보자,
이런 관계예요.

00:36:50.428 --> 00:36:54.111

마을 안에 있을 때 이십
촌안팎으로나마 서로 아주 가까운

00:36:54.211 --> 00:36:58.047

조카 집안끼리였다는 것이 부산
하늘 밑에서 새삼스러웠던 것이다.

00:36:58.147 --> 00:37:01.637

이제 우리 넛이 떨어지는 날은
죽는 날이다, 죽는 날이야.

00:37:01.737 --> 00:37:04.591

광석이는 몇 번이고
되풀이하야 지껄이곤 했다.

00:37:04.691 --> 00:37:06.662

이럭저럭 한 달쯤 무사히 지났다.

00:37:06.762 --> 00:37:09.543

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
날은 갈수록 아득해졌고,

00:37:09.643 --> 00:37:12.672

이 한 달 사이에 두찬이는
두찬이대로, 광석이는 광석이 대로

00:37:12.772 --> 00:37:15.576

남모르게 체각기 다른
배포가 서게 된 것은,

00:37:15.676 --> 00:37:17.178

다른 마음을 품었던 거죠.

00:37:17.278 --> 00:37:19.883

배포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들을
탓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.

00:37:19.983 --> 00:37:23.043

점점 고향에 가게 될
희망이 꺾이고,

00:37:23.143 --> 00:37:26.123

그러니까 자기의 살
궁리는 하는 거죠.

00:37:26.223 --> 00:37:27.950

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날
수밖에 없는 거잖아.

00:37:28.050 --> 00:37:31.019

첩사리 고향으로 못 돌아갈 바에는
늘 이려고만 있을 수는 없다.

00:37:31.119 --> 00:37:32.669

달리 변통을 취해야겠다.

00:37:32.769 --> 00:37:35.296

두찬이와 광석이는 나머지 셋
때문에 괜히 얽매어 있는 것처럼

00:37:35.396 --> 00:37:36.698

스스로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.

00:37:36.798 --> 00:37:41.578

두찬이와 광석이는 서로 나머지 셋
때문에 괜히 얽매어 있는 것처럼

00:37:41.678 --> 00:37:43.288

스스로 느끼는 거죠.

00:37:43.388 --> 00:37:45.878

자연 우리 사이는 차츰
데면데면해지고, 멀어지고.

00:37:45.978 --> 00:37:50.886

흠흠흠 서로의 눈치를
살피게끔 되었다.

00:37:50.986 --> 00:37:56.389

광석이는 애당초가 주책이
없다 할까 주변이 있다 할까

00:37:56.489 --> 00:38:00.244

엄병덤병 토박이 반원들과
얼려서 막걸리 사발이나

00:38:00.344 --> 00:38:03.532

얻어 마시곤 했고,
사교성이 좋다 그랬잖아요.

00:38:03.632 --> 00:38:07.058

구변 좋게 보탬을 해서
북쪽 얘기를 해 쌓고,

00:38:07.158 --> 00:38:08.910

이렇게 며칠이 지났을
때는 어느덧 반원들은

00:38:09.010 --> 00:38:13.248

나나 두찬이나 하원이와는
달리 광석이만은 오래 전부터

00:38:13.348 --> 00:38:17.524

사귀어 온 친구처럼 손을 맞잡고는
나왔나, 오냐 느 형님 여전하시다.

00:38:17.624 --> 00:38:20.618

버르장머리 몬 쓰겠다,
누구 보고 형님이라카노?

00:38:20.718 --> 00:38:24.918

자네 언제부터 말버르장머리하곤,
허 요새 세상이 이래 노니.

00:38:25.018 --> 00:38:29.731

농담조로 수인사가 오락가락했으니
나나 두찬이나 하원이는

00:38:29.831 --> 00:38:34.132

광석이의 이런 꼴을 멀끔히 남
바라보듯 건너다 봐야 했다.

00:38:34.232 --> 00:38:36.028

그러니까 좀 샘이 난
것 같기도 하고요.

00:38:36.128 --> 00:38:38.327

구체적인 어떤 심리라고
얘기할 수는 없지만,

00:38:38.427 --> 00:38:40.661

아무튼 넷이 한꺼번에
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,

00:38:40.761 --> 00:38:44.518

광석이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니까
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겠죠.

00:38:44.618 --> 00:38:47.881

광석이는 차츰 반원들과
어울려서 왱자지껄하는 데

00:38:47.981 --> 00:38:50.787

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고,
날이 갈수록 자신만만해졌다.

00:38:50.887 --> 00:38:53.998

그 꼴사나움은 이루 말할 수
없어 더더구나 주변머리 없고

00:38:54.098 --> 00:38:58.656

무뚝뚝하고 외양보다 실속만 자란
두찬이는 저대로 뒤틀리는 심사,

00:38:58.756 --> 00:39:00.605

이게 헤어지는 거죠, 계기가.

00:39:00.705 --> 00:39:02.407

지닌 채 다른 궁리를
차리는 모양이었다.

00:39:02.507 --> 00:39:05.708

사실 이 즈음부터 두찬이는
부두 안에서 암생이를 해도,

00:39:05.808 --> 00:39:08.793

암생이가 뭐죠?

00:39:08.893 --> 00:39:12.287

남의 물건을 조금씩 훔쳐내는
짓을, 암생이를 해도

00:39:12.387 --> 00:39:15.248

다만 밥 두 끼 값이라도
골고루 나누어 주는 법 없이

00:39:15.348 --> 00:39:20.717

일판만 나오면, 일만 나오면
혼자 부두 앞 틈 사이 셋길을

00:39:20.817 --> 00:39:22.120

허청허청 돌아다녔다.

00:39:22.220 --> 00:39:24.760

좀 슬슬 이기적인 모습이 된 거죠.

00:39:24.860 --> 00:39:28.042

이런 두찬이는 으레 술이 듬뿍
취해 화차간으로 돌아오곤 하였다.

00:39:28.142 --> 00:39:29.376

하원이는 자주 울먹거렸다.

00:39:29.476 --> 00:39:31.011

부산은 눈두 안 온다, 잉.

00:39:31.111 --> 00:39:32.927

계속 얘기하죠, 고향이
그리운 거죠.

00:39:33.027 --> 00:39:35.265

애스럽게 지껄이곤 했다.

00:39:35.365 --> 00:39:39.822

나중에 제 기억으로는 광석이가
죽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

00:39:39.922 --> 00:39:42.564

이제 팔이 이렇게 잘려서
화차에서 뛰어내리다가

00:39:42.664 --> 00:39:44.374

팔이 잘려서 이렇게 죽거든요.

00:39:44.474 --> 00:39:47.945

그러면서 이제 두찬이가 뿔뿔이
이렇게 흩어지고 이러면서

00:39:48.045 --> 00:39:49.459

나도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?

00:39:49.559 --> 00:39:52.652

하원이를 버릴 결심을 하고,
이런 내용이 나와요.

00:39:52.752 --> 00:39:56.490

보시면 (가)의 화자는 고향으로

돌아가는 배 안에 있다.

00:39:56.590 --> 00:39:58.487
아니죠, 무슨 배 안에 있겠어요.

00:39:58.587 --> 00:40:00.276
부두 앞에 있다 그랬으니까.

00:40:00.376 --> 00:40:02.743
(나)에서 등장인물의 생활 공간이자
타향에서 일정한 거처 없이

00:40:02.843 --> 00:40:06.123
떠도는 비참한 삶을 상징하는 건
바로 화차간일 겁니다, 그렇죠?

00:40:06.223 --> 00:40:08.199
(나)의 시간적 배경은
6.25 전쟁 당시이고,

00:40:08.299 --> 00:40:10.473
공간적 배경은 피란지인
부산이다, 적절합니다.

00:40:10.573 --> 00:40:17.420
1번, (가)의 눈보라와 (나)의
눈에 대한 의미와 기능을 생각해보는

00:40:17.520 --> 00:40:18.515
학습 활동이라 그랬죠.

00:40:18.615 --> 00:40:20.293
(가)의 눈보라예요,
(나)의 눈입니다.

00:40:20.393 --> 00:40:22.027
의미가 좀 달랐죠, 여러분?

00:40:22.127 --> 00:40:25.906
(나)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
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

00:40:26.006 --> 00:40:28.717
이렇게 얘기하면서 고향을
떠올리게 되는 거니까.

00:40:28.817 --> 00:40:31.124
정답을 확인해 보실까요?

00:40:31.224 --> 00:40:36.187
정답은 ㉠의 눈은 부정적이라고
하는 걸 알 수 있겠고.

00:40:36.287 --> 00:40:39.432
㉡의 눈은 긍정적인, ㉢가 뭐죠?

00:40:39.532 --> 00:40:44.447
㉠는 긍정이고, ㉢는
부정이라고 하는 걸, 다시.

00:40:44.547 --> 00:40:48.403

㉠가 부정이고, ㉡, ㉢가
긍정인 건 알겠죠, 여러분?

00:40:48.503 --> 00:40:51.567
이게 긍정이라고 하는
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.

00:40:51.667 --> 00:40:52.928
눈보라 친다 그랬으니까.

00:40:53.028 --> 00:40:55.172
그러니까 그리움, 순수
이런 거 틀렸고요.

00:40:55.272 --> 00:40:56.718
정화 이런 거 다 틀렸고.

00:40:56.818 --> 00:40:57.932
답이 3번이네요, 결백.

00:40:58.032 --> 00:40:59.221
틀렸으니까.

00:40:59.321 --> 00:41:01.156
시련, 화자의 상황을
암시하고 있다.

00:41:01.256 --> 00:41:04.580
왜? 눈보라 치고 있는
우라지오 항구에 있는 거니까.

00:41:04.680 --> 00:41:07.221
추억이고 회상의 매개체가
되는 거니까 맞죠?

00:41:07.321 --> 00:41:09.969
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.

00:41:10.069 --> 00:41:13.338
(가)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
것을 찾으라 그랬는데.

00:41:13.438 --> 00:41:14.840
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요.

00:41:14.940 --> 00:41:18.091
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
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는데,

00:41:18.191 --> 00:41:19.289
밤이 짧아요.

00:41:19.389 --> 00:41:22.110
밤이라고 하는 건 선달
그믐이고 겨울이고 그러니까

00:41:22.210 --> 00:41:26.270
시간적 배경이 외로움을 더 심화시키고
있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죠.

00:41:26.370 --> 00:41:27.533

순차적으로 아닙니다.

00:41:27.633 --> 00:41:29.593

과거 회상 있었어요.

00:41:29.693 --> 00:41:33.008

그다음에 3번을 보면 (가)를 감상한
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

00:41:33.108 --> 00:41:34.314

골라라 그랬는데.

00:41:34.414 --> 00:41:37.566

불타는 소원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
간절한 화자의 마음을 표현했다.

00:41:37.666 --> 00:41:38.675

적절하죠.

00:41:38.775 --> 00:41:40.924

짚레 한 송이 없었대도,
지나온 길에서.

00:41:41.024 --> 00:41:43.254

현실의 추위와 외로움만 가득했다.

00:41:43.354 --> 00:41:45.117

행복감이 하나도 없었다는
거니까 적절하죠.

00:41:45.217 --> 00:41:49.206

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는
것은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

00:41:49.306 --> 00:41:51.446

의연히 대처하며 후회
없는 삶을 살아왔다.

00:41:51.546 --> 00:41:53.668

당당함을 나타내고 있는
거니까 동그라미.

00:41:53.768 --> 00:41:56.111

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
어질다고 하는 것은

00:41:56.211 --> 00:42:00.052

가족이 해체된 우리 민족의 슬픔과
환을 형성화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

00:42:00.152 --> 00:42:02.989

여기에서는 어머니에 대한
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죠.

00:42:03.089 --> 00:42:05.395

어머니의 입김이 눈앞에 어른거리는
것 같다고 하는 거니까.

00:42:05.495 --> 00:42:07.916

화자가 회상하고 있는 유년
시절에 대한 기억으로

00:42:08.016 --> 00:42:09.855

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
화자의 간절한 마음을

00:42:09.955 --> 00:42:11.141

더욱 심화시키고 있다, 적절합니다.

00:42:11.241 --> 00:42:13.390

회상 장면이 나왔었다 그랬어요.

00:42:13.490 --> 00:42:17.748

(나)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
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.

00:42:17.848 --> 00:42:20.488

정답은 몇 번이냐면
1번이 정답입니다.

00:42:20.588 --> 00:42:26.457

1번을 보면 나와 하원은
두찬이의 태도에 대해서

00:42:26.557 --> 00:42:30.254

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
했는데, 그 부분이 없죠.

00:42:30.354 --> 00:42:36.051

여기에서는 광석이
두찬이에게 아쉬움을 표현.

00:42:36.151 --> 00:42:38.508

여기 외지에 나와서는
사교성도 있어야 되는 건데,

00:42:38.608 --> 00:42:42.219

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지만,
나하고 하원이 두찬이의 태도에서

00:42:42.319 --> 00:42:43.777

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건 없어요.

00:42:43.877 --> 00:42:45.221

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.

00:42:45.321 --> 00:42:47.033

손님 왔는데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.

00:42:47.133 --> 00:42:48.685

감상적인 태도, 눈도 안 온다 잉.

00:42:48.785 --> 00:42:52.438

소극적 태도로, 일부러 적극적으로
태도를 하고 있는 건 광석이고.

00:42:52.538 --> 00:42:53.474

아니죠.

00:42:53.574 --> 00:42:55.677

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옳다고
생각한다, 적절합니다.

00:42:55.777 --> 00:42:57.556
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.

00:42:57.656 --> 00:43:00.741
5번, [A], [B]에 대한 설명으로
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는데.

00:43:00.841 --> 00:43:05.948
[A] 부분은 뭐였냐면 배 하나 없어
가지도 오지도 못할 우라지오예요.

00:43:06.048 --> 00:43:08.525
[B] 부분은 뭐냐면
눈도 안 온다.

00:43:08.625 --> 00:43:10.627
고향에 대한 그리움을
나타내고 있죠.

00:43:10.727 --> 00:43:13.454
정답은 몇 번이냐면
1번이 정답인데요.

00:43:13.554 --> 00:43:15.873
서로 다른 대상을 통해
화자의 마음을 드러낸다.

00:43:15.973 --> 00:43:19.851
[A]에서는 멧비둘기를 통해서
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,

00:43:19.951 --> 00:43:21.665
화자와 대조가 되잖아요.

00:43:21.765 --> 00:43:24.914
그다음에 등대라고 하는 것도 역시
마찬가지로 그리워만 하고 있지

00:43:25.014 --> 00:43:27.423
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
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

00:43:27.523 --> 00:43:29.694
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.

00:43:29.794 --> 00:43:32.208
2번은 [B]는 적대감
나타내고 있지 않아요.

00:43:32.308 --> 00:43:34.426
고향에 대한 그리움만
나타내고 있으니까.

00:43:34.526 --> 00:43:36.547
화자와 유사한 대상 맞고요.

00:43:36.647 --> 00:43:39.658
화자와 유사한 대상, 등대라고
하는 게 유사한 대상 맞겠고.

00:43:39.758 --> 00:43:42.758

그다음 인물과 대조적인 대상은
여기에서 없었습니다.

00:43:42.858 --> 00:43:44.825

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다, 아니죠.

00:43:44.925 --> 00:43:47.211

틀렸고, 인물은 미래에
대해서 절망적이다.

00:43:47.311 --> 00:43:49.318

갈 수 있을 거라고
생각했으니까 틀렸고.

00:43:49.418 --> 00:43:51.659

과거의 기억을 부정하고
있다, 틀렸죠.

00:43:51.759 --> 00:43:54.527

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

00:43:54.627 --> 00:43:59.222

여러분, 5분 30초 동안 이 문제를
풀었어야 되는데 잘 푸셨습니까?

00:43:59.322 --> 00:44:03.610

여러분, 여기까지 여러 가지
실전 문제의 내용을 통해서

00:44:03.710 --> 00:44:05.326

여러 유형들을 살펴봤고요.

00:44:05.426 --> 00:44:07.704

그다음 시간에는 산문 문학
들어갈 겁니다, 여러분.

00:44:07.804 --> 00:44:10.388

줄글로 길게 나타나는
것들이니까 산문 문학

00:44:10.488 --> 00:44:13.539

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
공부하고 가겠습니다.

00:44:13.639 --> 00:44:14.952

여러분, 여기까지 할게요.

00:44:15.052 --> 00:44:17.021

수고하셨습니다.